AI 뉴스와 용어
월·수·금 오전 7시

METAL
First, AI Magazine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
metallab.ai

제 48 호 |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 오늘의 AI

비즈니스

인텔, 추론용 GPU D-series 사양 공개

인텔이 코드명 크레센트 아일랜드였던 데이터센터 추론용 GPU D-series의 세부 사양을 공개했다. HBM 대신 LPDDR5X를 최대 480GB 싣고 350와트 공랭식 PCIe 카드로 만들어 기존 서버에 꽂는 길을 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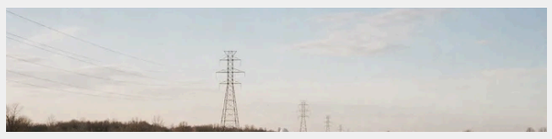


비즈니스 · 인텔, 추론용 GPU D-series 사양 공개

인텔이 데이터센터 추론용 GPU D-series의 세부 사양을 공개했다. 인텔은 10월 12일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OCP) 글로벌 서밋에서 코드명 크레센트 아일랜드로 알려졌던 이 GPU의 정식 이름과 성능 수치를 밝혔다. 카드 한 장에 LPDDR5X 메모리를 최대 480GB 싣고, 메모리 대역폭 초당 1.5테라바이트(TB/s)와 FP8 기준 1.3페타플롭스 연산 성능을 350와트 전력 안에 담았다는 것이 인텔의 설명이다. 고객사 샘플 공급은 이미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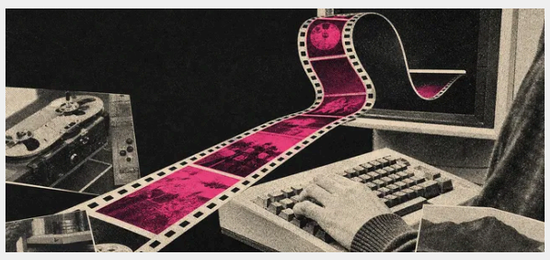
설계의 출발점은 추론이다. 인텔에 따르면 D-series는 최신 Xe3P 아키텍처로 만들었고, 카드 한 장에 매개변수 3000억 개 규모의 모델을, GPU 8장을 꽂은 시스템에서는 1조 개가 넘는 모델을 올릴 수 있다. 제품 페이지에 적힌 첫 모델명은 D270이다. Xe3P 코어 32개와 행렬 연산 엔진(XMX) 256개를 넣었고, 일반 그래픽과 레이 트레이싱 파이프라인에 쓰던 칩 면적을 연산 코어와 행렬 연산으로 돌렸다. 보도에 따르면 L2 캐시는 32MB다. 이름은 GPU지만 게임용 그래픽카드가 아니라는 뜻이다.

메모리 선택이 이 제품의 성격을 정한다. 경쟁 AI 가속기 상당수가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쓰는 것과 달리 D-series는 LPDDR5X를 택했다. 인텔 브랜드로 나오는 PCIe 카드는 160GB이고, 480GB는 제조 협력사가 설계를 받아 자체 브랜드 카드로 만들 때의 최대치다. 보도에 따르면 인텔이 지금 파는 PCIe 추론 가속기 가우디 3는 HBM2e 128GB에 대역폭 3.7TB/s다. D-series는 메모리 용량이 그 네 배에 가깝지만 대역폭은 절반에 못 미친다. 인텔은 최대 대역폭보다 와트당·비용당 용량이 추론 서비스의 숫자라고 보고 있다.



인텔이 노리는 수요는 에이전트다. 제품 페이지는 에이전트가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읽는다고 설명한다. 수천 단계를 오가고 10만 토큰짜리 맥락을 붙든 채 수십 개 세션을 동시에 돌리는 작업에서는 연산보다 메모리가 먼저 바닥난다. 인텔은 모델과 긴 맥락을 카드 안에 더 많이 담아 HBM 없이도 더 적은 GPU로 추론하게 한다고 밝혔다. 인텔 데이터센터 그룹의 아닐 난두리 AI 제품·시장진출 담당 부사장은 "추론이 AI의 결정적인 작업이 되고 있고, 기업은 적절한 비용에 적절한 성능을 내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D-series로 대용량 추론을 실제로 배치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늘릴 수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치 방식도 기존 데이터센터에 맞췄다. D-series는 표준 PCIe 5.0 규격의 공랭식 카드라 액체 냉각 설비를 새로 깔거나 전용 랙을 짓지 않아도 지금 쓰는 서버에 꽂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인텔 GPU 공통의 Xe 기반 위에 올라가 다른 인텔 GPU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옮겨 쓸 수 있고, vLLM과 파이토치 생태계를 지원한다. 인텔은 메타의 공개 모델 뮤즈 글리머를 출시 당일부터 D-series와 제온에서 돌릴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기조연설에 걸린 협력사 슬라이드에는 델, HPE, 레노버, 슈퍼마이크로 같은 서버 제조사와 레드햇, 허깅페이스 등 로고 53개가 올랐다.



힉스필드, 터미널 생성 도구 사용 가이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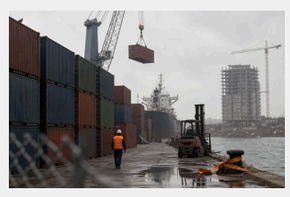
GPU 옆에는 CPU 랙이 섰다. 인텔은 OCP의 오픈 랙 v3(ORv3) 규격을 따른 제온 6+ 랙 설계를 함께 공개했고, 의 성능을 목표 지연 시간 안에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에이전트 수로 재는 쪽으로 기준이 옮겨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니콜라 뒤베 인텔 데이터센터 시스템·솔루션 그룹 부사장은 "공개 모델이 기업의 AI 배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며 "그 잠재력을 살리려면 작업마다 알맞은 지능과 연산 자원, 경제성을 맞춰 주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레센트 아일랜드는 1년 만에 이름을 얻었다.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2025년 OCP에서 이 GPU를 처음 소개했고, 올해 8월 핫칩스 학회에서 칩 구조를 설명했다. 이번 서밋에서 더해진 것은 정식 이름과 대역폭·연산 수치, 그리고 고객이 샘플을 받았다는 확인이다. 메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추론 칩 Maia 300 공개를 보도한 바 있으며, 인텔은 추론 칩 경쟁에서 HBM 대역폭 대신 용량과 공랭이라는 다른 축을 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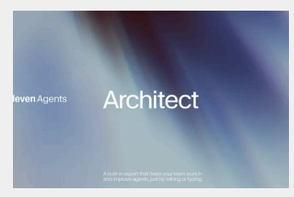
메탈이 확인한 인텔 보도자료 원문에는 인텔이 2011년 이후 OCP에 116건을 기여했고 업계 협력사들과 함께 랙보다 작은 표준 가속기 카드 규격을 만드는 오픈 어댑터 카드 작업그룹에 참여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케보크 케치치안 인텔 수석부사장 겸 데이터센터 그룹 총괄은 "에이전틱 AI가 고객이 데이터센터에 요구하는 것을 바꾸고 있다"며 "성공은 어느 한 부품이 아니라 제온과 목적형 가속기, 상호운용 소프트웨어를 묶은 개방형 이종 인프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인텔은 가격과 정식 출시일을 내놓지 않았다. 오래 돌고 메모리를 많이 먹는 추론 작업에 랙과 냉각을 바꾸지 않는 카드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인텔의 계산이다.

오늘 지면

1 비즈니스 인텔, 추론용 GPU D-series 사양 공개
2 AI 메타, 기가와트급 슈퍼클러스터 프로메테우스 공개
3 AI 딥마인드, Argon 에이전트 팀 마인크래프트 완주
4 비즈니스 CyberSN, 보안 채용공고 26.4% 감소 집계
5 연구실 데이터센터가 하는 일, 10의 27제곱 번의 계산
6 기후 아마존, 인디애나 960메가와트 SMR 개발 지원



중국 국가통계국, 3분기 성장률 4.5% 발표



일레븐랩스, 일레븐에이전트 아키텍트 알파 공개

이 지면은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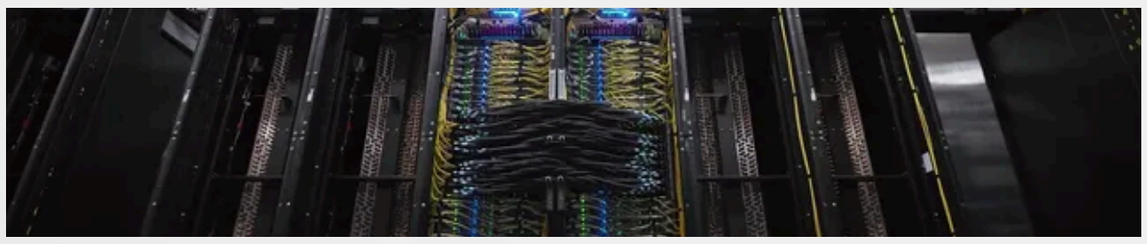
CyberSN, 보안 채용공고 26.4% 감소 집계

미국 사이버보안 채용공고가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 보안 인력 전문 기업 CyberSN이 내놓은 사이버보안 채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서 올라온 사이버보안 채용공고는 23만57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만210건보다 26.4% 줄었다. CyberSN이 집계를 시작한 뒤 4년 가운데 같은 기간 기준 최저다. 같은 보고서에서 AI 보안 엔지니어 공고는 268.3% 늘었다. 전체 보안 채용공고가 4

▶ 2면에 계속

AI

메타, 기가와트급 슈퍼클러스터 프로메테우스 공개



메타가 오하이오주 뉴올버니에 짓고 있는 기가와트급 슈퍼클러스터 프로메테우스의 내부 설계를 10월 19일 공개했다. 메타는 같은 날 공식 X 계정에서 Muse Wonder를 포함한 Muse 기반 모델을 모두 이 클러스터에서 학습했다고 밝혔다. 1단계 공사는 이미 끝났고, 다 지으면 GPU 약 100만 개가 한 대의 기계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공개의 핵심은 규모가 아니라 가동률이다. Muse Wonder 학습에서 사전학습의 굿풋은 85%를 넘었고 강화학습은 90%를 넘었다. 굿풋은 투입한 연산 가운데 실제 학습에 쓰인 몫이다. 학습이 끊기는 평균 간격(MTBI)은 GPU 시간으로 약 4만7000시간이었고, 그 뒤 펌웨어 수정을 함대 전체에 깔아 5만4000시간 이상으로 늘렸다. 메타 엔지니어

▶ 2면에 계속

AI

딥마인드, Argon 에이전트 팀 마인크래프트 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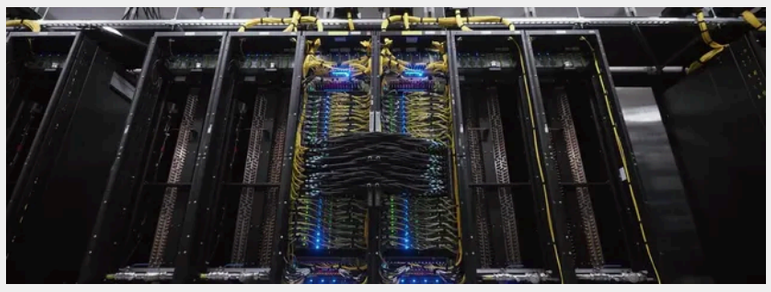
구글 딥마인드의 범용 코딩 에이전트 네 개가 사람 개입 없이 마인크래프트를 완주했다. Gemini 4 Argon으로 돌린 에이전트 팀은 무작위로 생성된 서바이벌 세계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27시간 14분 만에 최종 보스인 엔더 드래곤을 쓰러뜨렸다. 그동안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짜고 돌린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은 2,783개였고, 서로 주고받은 채팅은 229건, 죽은 횟수는 605번이었다. 연구진은 10월 15일 arXiv에 기술 보고서를 올렸고, 구글 딥마인드는 10월 16일 X에 결과를 알렸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이 만든 게임 전용 도구 없이 AI 에이전트가 마인크래프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로 완주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 2면에 계속

◀ 1면에서 계속

AI

메타, 기가와트급 슈퍼클러스터 프로메테우스 공개



1 메타는 10월 19일 오하이오주 뉴올버니의 기가와트급 슈퍼클러스터 프로메테우스에서 Muse Wonder를 포함한 Muse 기반 모델을 학습했다고 밝혔다.

2 Muse Wonder 학습의 굿풋은 사전학습 85% 이상, 강화학습 90% 이상이었고 학습 중단 간격은 약 4만7000 GPU 시간에서 5만4000 GPU 시간 이상으로 늘었다.

3 2025년 중반 GPU 8000개당 하루 1000건 가까웠던 중단은 1년 만에 99% 줄었고, 다 지으면 GPU 약 100만 개 규모가 된다.

출발점은 평범한 데이터센터였다. 2년 전 뉴올버니는 웹 트래픽을 처리하는 전통적인 시설이었고, 메타는 이곳을 프론티어 모델 학습장으로 고쳐 지었다. 지금 프로메테우스에는 GPU 수십만 개가 기존 건물, AI 전용 건물, 신속 배치형 구조물에 나뉘어 들어가 있고 광섬유로 묶여 하나의 기계로 작동한다. 메타는 앞으로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스의 다음 프론티어 모델을 위해 클러스터를 계속 키운다고 밝혔다.

하드웨어는 엔비디아 플랫폼 두 세대가 섞여 있고 세 번째가 곧 들어온다. 첫 플랫폼 카탈리나는 GB200 NVL72를 두 랙으로 나눈 아리엘 구성이다. 랙마다 GPU 36개가 NVLink로 묶여 72개짜리 단일 도메인을 이루고, HBM3e 메모리 13.4테라바이트와 FP8 기준 최대 720페타플롭스를 낸다. 메타는 GPU 하나당 네트워크 대역폭을 업계보다 먼저 800기가비트로 올리려고 이 구성을 골랐다. 두 번째 플랫폼 클레멘테는 GB300 NVL72로, GPU당 메모리를 192기가바이트에서 288기가바이트로 1.5배 늘리고 72개 GPU를 랙 하나에 담았다. 성능은 GB200 NVL72보다 5~10% 높고 랙 전력은 약 135킬로와트다.

건물 사이를 잇는 망이 학습 속도를 좌우한다. 건물 단위 이더넷 패브릭 하나가 GPU를 최대 2만736개까지 연결하고, 그 위에 백엔드 애그리게이션(BAG) 망이 2킬로미터에서 100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건물 패브릭을 묶는다. 이 거리에서는 빛의 속도가 제약이 되기 때문에 메타는 사전학습이 느려지지 않도록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스와 따로 최적화 작업을 벌였다. 프로메테우스 전체에는 광섬유 가닥 수백만 마일과 스위치 수만 대, 광모듈 수백만 개가 들어갔고, 10킬로미터가 넘는 구간에는 800G-ZR 코히어런트 광모듈을 쓴다.

◀ 1면에서 계속

AI

딥마인드, Argon 에이전트 팀 마인크래프트 완주



1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은 10월 15일 기술 보고서에서 Gemini 4 Argon 에이전트 네 개가 무작위 서바이벌 세계를 27시간 14분 만에 완주했다고 밝혔다.

2 에이전트들은 Mineflayer 라이브러리만으로 프로그램 2,783개를 짜고 채팅 229건으로 역할을 나눴으며, 그 과정에서 605번 죽었다.

3 보고서는 전체 세션 비용을 공개 정가 기준 약 810달러로 추산했고, 난이도 쉬움과 단 한 번의 실행 같은 조건도 함께 적었다.

판은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1.20.4, 난이도 쉬움, 치트 명령 차단이었다. 팀이 갖춰진 건 10분 만이었다. janesick이 채팅으로 역할 분담을 제안했고 1분 안에 auratian이 다른 안을 내놓으며 역할이 정해졌다. 1시간 42분에 지옥으로 가는 네더 포털에 불이 붙었고, 10시간 43분에 엔더의 눈을, 13시간 17분에 엔드 포털이 있는 요새를 찾았다. 요새 위치는 janesick이 두 곳에서 엔더의 눈을 던져 궤적을 50밀리초마다 기록하고 두 직선의 교점을 계산해 찾았다. 1.3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추정했고, 오차는 43미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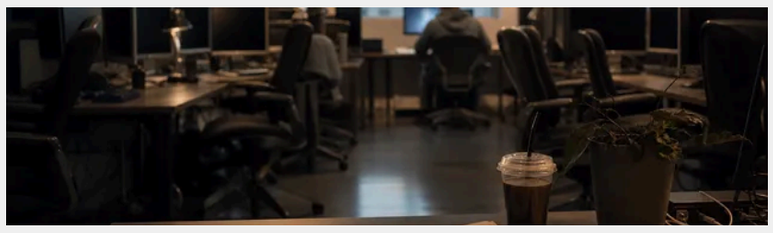
가장 오래 걸린 건 마지막 싸움이었다. 드래곤에게만 69번 죽었고 엔드에서의 전투는 1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돌파구는 21시간 무렵 나왔다. auratian은 기둥 위 크리스털 열 개가 드래곤 체력을 계속 채운다는 점을 짚고, 곡괭이 없이 흙을 쌓아 올라가 크리스털을 주먹으로 깨면 된다는 방법을 팀에 알렸다. 마지막 크리스털이 깨지고 39분 뒤 드래곤이 쓰러졌고, 마지막 일격을 넣은 bulicame의 체력은 20 가운데 2.5만 남아 있었다.

협업 방식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사람 팀과 닮아 갔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229건의 메시지 가운데 정확한 좌표를 담은 것이 173건, 공유 상자 관련이 64건, 동료에게 위험을 알린 경고가 24건, 죽은 동료의 아이템 회수가 20건이었다. 한 에이전트가 만든 보조 함수는 네 에이전트가 쓴 프로그램 655개에 다시 쓰였다. 성공했다고 잘못 알린 auratian은 2분 뒤 "직전 채팅은 검증하지 않은 스크립트 분기였다"고 스스로 정정했다.

◀ 1면에서 계속

비즈니스

CyberSN, 보안 채용공고 26.4% 감소 집계



1 CyberSN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9월 미국 사이버보안 채용공고는 23만 57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만210건보다 26.4% 줄었다.

2 내부자 위협 분석가 55.6%, 모의해킹 전문가 45.9%, CISO 38.9% 등 실무·리더 공고가 줄었고 AI 보안 엔지니어는 268.3%, 사이버 데이터 과학자는 203.5% 늘었다.

3 2023년 이후 GRC 비중은 9.4%에서 14.8%로 커지고 방어 분야는 47.1%에서 41.5%로 줄어 수요가 위험 관리 쪽으로 옮겨 가고 있다.

26.4%라는 낙폭에는 기저 효과가 섞여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이 이례적으로 강한 해였고, 2024년과 견주면 격차는 4% 안팎으로 좁혀진다. 2026년은 2025년에 늘어난 몫을 고스란히 내주고 조금 더 밀린 해다. 아홉 달 가운데 지난해보다 공고가 많았던 달은 9월 하나였고, 그 차이도 400건이 채 안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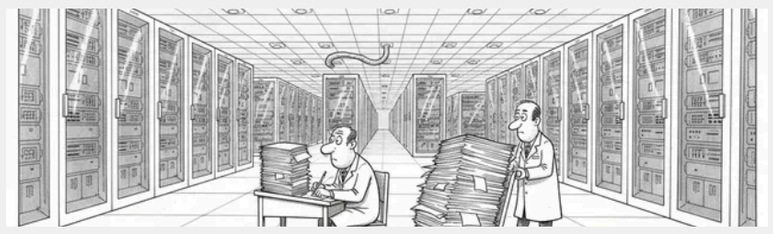
줄어든 자리는 현장 실무 쪽에 몰렸다. 내부자 위협 분석가 공고는 55.6% 줄어 1088건, 사이버 위험 분석가는 51.5% 줄어 4031건, 모의해킹 전문가는 45.9% 줄어 3063건이 됐다. 보안 팀장급은 41.0% 줄어 4688건, 위협 헌터는 40.0% 줄어 1013건, 보안 프로젝트 매니저는 39.4% 줄어 783건이었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공고도 38.9% 줄어 2832건을 기록했다.

CISO 숫자는 겉보기보다 덜 나쁘다. 2026년의 2832건은 2024년의 2808건과 거의 같고,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는 19.5% 늘었다. 디드리 다이아몬드 CyberSN 최고경영자는 한 인터뷰에서 "보안 리더 채용의 변동은 보안 리더의 필요가 근본적으로 줄어서라기보다 경영진 전반의 혼란과 더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CEO나 CIO, CFO 같은 경영진 후원자가 바뀌면 보안 채용이 멈춘다"며 "공석은 보류되고 예산은 재검토되며 새 경영진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까지 결정이 미뤄진다"고 설명했다.

연구실

데이터센터가 하는 일, 10의 27제곱 번의 계산

서버 랙 한 대가 가정 100채의 전기를 쓰고, 데이터센터 한 곳이 시애틀만큼 쓴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덧셈과 곱셈이고, GPT 6 Astra 는 그것을 10의 27제곱 번 반복했다.



1 데이터센터가 하는 일은 덧셈과 곱셈이다. GPT 6 Astra 의 학습에는 이 계산이 약 10의 27제곱 번, 2018년 GPT 1 의 5,000만 배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2 AI 용 서버 랙 한 대는 미국 가정 100채의 전기를 쓰고, 스타게이트 애빌린 한 곳은 시애틀 시 전체만큼 쓴다. 에포크 AI 가 추적하는 94곳의 설비 용량은 18.5기가와트로 뉴욕시 최대 수요 11기가와트보다 크다.

3 구글의 2025년 전기 사용은 37% 늘었고 PUE 는 1.09 다. 가장 큰 학습 한 건의 전력은 해마다 2.2배씩 늘어 2030년에는 4~16기가와트, 뉴욕시 전체 소비 수준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데이터센터가 밤낮으로 하는 일은 덧셈과 곱셈 두 가지다. 챗GPT 같은 AI 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에 올 단어를 조금 더 잘 맞히도록 숫자를 고치는 일의 반복이고, 그 한 번 한 번은 계산기로도 할 수 있을 만큼 작다. 다만 횟수가 상상을 넘는다. 2026년에 나온 OpenAI 의 GPT 6 Astra 를 학습시키는 데는 이 계산이 약 10의 27제곱 번, 곧 1 뒤에 0 이 27개 붙는 횟수만큼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첫 모델 GPT 1 의 5,000만 배가 넘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별의 수보다 1,000배 많은 횟수다. 이 계산을 하려고 지은 건물이 데이터센터이고, 그 건물이 이제 도시 하나만큼의 전기를 쓴다.

먼저 건물 안부터 보자. AI 데이터센터는 겉으로는 창문 없는 큰 창고다. 에포크 AI 의 데이터센터 연구 책임자 벤 코티어와 최고전략책임자 야파 에델먼이 쓴 데이터센터 개요에 따르면 그 안에는 냉장고만 한 금속 캐비닛, 서버 랙이 줄지어 서 있다. 요즘 AI 용 표준 랙인 엔비디아 NVL72 한 대에는 GPU 72개가 들어가고, 높이는 2미터 남짓, 바닥 면적은 0.5제곱미터다. 그 작은 부피 안에서 100킬로와트가 넘는 전기를 쓰는데, 미국 가정 100채가 동시에 쓰는 양이다. AI 용이 아닌 보통 데이터센터의 랙은 10킬로와트 정도를 쓰니 열 배 차이가 난다.

칩을 이렇게 빽빽하게 붙여 놓는 이유는 칩끼리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열이 문제가 된다. 보통 데이터센터는 큰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열을 식히지만, AI 데이터센터는 그 방법으로는 감당이 안 돼 액체 냉각을 쓴다. 칩 위에 금속판을 얹고 그 안으로 냉각액을 흘려 열을 받아낸 뒤, 그 열을 다시 물에 옮겨 건물 밖으로 내보낸다.

기후

아마존, 인디애나 960메가와트 SMR 개발 지원

아마존이 AEP와 엑스에너지가 인디애나주 옛 석탄발전소 부지에 추진하는 960메가와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사업에 자금을 대고 첫 구매자가 된다.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발전소 건설과 운영 비용을 장기 계약으로 떠안는 구조다.



1 AEP와 엑스에너지는 10월 19일 인디애나주 설리번카운티 옛 브리드 석탄발전소 터에 Xe-100 원자로 12기, 960메가와트를 세우는 공동개발 계약을 발표했고 아마존은 펀딩 계약으로 개발 자금을 댄다.

2 아마존은 가동 뒤 장기 계약으로 전력을 사들이며 계약 기간 동안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비용을 모두 충당할 계획이고, 사업은 최종투자결정을 거쳐야 건설로 넘어간다.

3 이번 사업은 2039년까지 미국에 5기가와트 넘는 원전을 더하려는 아마존과 엑스에너지의 두 번째 프로젝트로, 건설 일자리 1000개 이상과 상시 일자리 100개 이상이 기대된다.

아마존이 미국 인디애나주에 960메가와트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발전소를 짓는 개발 사업에 자금을 대기로 했다. 미국 전력회사 아메리칸일렉트릭파워(AEP)와 원자로 개발사 엑스에너지(X-energy)는 10월 19일 인디애나주 설리번카운티의 옛 석탄발전소 부지에 엑스에너지의 Xe-100 원자로 12기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아마존은 개발 자금을 대는 펀딩 계약을 맺었고, 발전소가 가동되면 첫 구매자로서 장기 계약으로 전력을 사들인다. 아마존은 이 전력이 지역 전력망과 자사 데이터센터에 함께 공급된다고 밝혔다.

계약의 핵심은 비용을 누가 지느냐다. 메탈이 확인한 AEP 발표문에 따르면 아마존은 장기 계약 기간 동안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비용을 모두 충당하는 조건으로 전력을 구매할 계획이다. 빌 페르만 AEP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아마존, 엑스에너지와 맺은 계약은 어떤 원전 사업이든 앞으로 나아가려면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말해 온 모든 자본 보호 장치와 재무 안전장치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계획이 "기존 고객의 요금 부담을 지키면서 전례 없는 전력 수요 증가를 기저부하 전력으로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비 구성은 구체적이다. Xe-100은 기당 전기 출력 80메가와트의 고온가스로다. 보도에 따르면 열출력은 기당 200메가와트다. 이번 사업은 4기씩 세 묶음으로 배치해 960메가와트를 만든다. 냉각재로 헬륨을, 연료로 우라늄 알갱이를 고온 세라믹 층으로 감싼 TRISO 연료를 쓴다. 아마존은 미국 에너지부가 TRISO를 "지구상에서 가장 견고한 핵연료"라고 부른다고 소개하며, 이 구조 덕분에 능동 설비나 사람의 개입 없이도 물리 법칙만으로 노심 용융을 막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공랭식과 수랭식, 혼합식 가운데 부지 여건에 맞는 냉각 방식을 고를 수 있어 물이 부족한 지역에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비즈니스

중국 국가통계국, 3분기 성장률 4.5% 발표

중국 국가통계국이 3분기 경제성장률을 4.5%로 발표했다. 하이테크 제조업과 수출이 2분기의 3년 만의 최저에서 반등을 이끌었지만 소비와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다.



1 중국 국가통계국은 10월 19일 3분기 GDP가 4.5% 성장했고 1~3분기 누적 GDP는 107조1071억 위안으로 4.6% 늘었다고 발표했다.

2 하이테크 제조업 부가가치는 14.3%, 산업용 로봇 생산은 29.1%, 수출은 16.4% 늘어 2분기 4.3%에서 반등을 이끌었다.

3 반면 소매판매는 1.1% 증가에 그쳤고 고정자산투자는 7.2%, 부동산 개발 투자는 20.6% 줄어 국가통계국도 내수 부족을 인정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을 4.5%로 발표했다. 국가통계국은 10월 19일 오전 발표문에서 1~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07조1071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다고 밝혔다. 분기별로는 1분기 5.0%, 2분기 4.3%, 3분기 4.5%였고, 3분기는 직전 분기보다 1.2% 성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은 이코노미스트 예상치 4.4%를 웃돌았고, 3년 만의 최저였던 2분기의 4.3%에서 반등했다.

성장을 끌어올린 것은 공장과 수출이다. 1~3분기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는 5.3% 늘었고, 장비 제조업은 10.2%, 하이테크 제조업은 14.3% 성장해 공업 전체보다 각각 4.9%포인트, 9.0%포인트 빨랐다. 중국 국가통계국 집계로 품목별로는 산업용 로봇 생산이 29.1%, 리튬이온 배터리가 39.5%, 3D 프린터가 62.5% 늘었다. 9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5.5%로 전달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